

좋은 책을 추천받고 싶은 청소년,
 좋은 독서의 방법을 알기 원하는 청소년,
 책벌레라 자부하지만 소설을 자랑할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이 글을 읽자.
 간단한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 어린 기대로
 청소년 도서목록을 선정하는 교사들의 모임도 있으며,
 청소년들의 깊이 있는 책읽기를 위해
 노력해 온 아름다운 단체도 있다.
 반갑게도 때를 맞춰 청소년 눈높이의
 인문·문학잡지가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입시경쟁시대,
 경쟁력은 교과서와 문제집이 아닌
 한 권의 책에 숨어 있음을 알려주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본다.

청소년 사랑은 교사들이 먼저,
 '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허영만의 《식객》, 박민규의 《삼미슈퍼스타
 즈의 마지막 팬클럽》, 한비야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코난 도일의 《셜
 록 홈즈》. 밝은 눈으로 청소년 도서목록을
 선정해 온 '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이
 하 책파세)이 2004년 1월 발표한 도서목록
 이다. 목록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만화에서
 여행산문집까지, 읽는 재미가 쏠쏠한 책들
 이다.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도
 서목록이라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치친 몸
 과 마음을 쉬게 하겠다는 '좀 놀아!' 라는
 갈래에 포함된 책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책파세는 독서교육을 즐겁게 실천하
 고자 오랫동안 현장에서 고민해 온 교사들
 의 모임. 책파세가 선정한 도서목록은 중앙
 일간지가 앞다뒀 소개할 만큼 정통한 정보
 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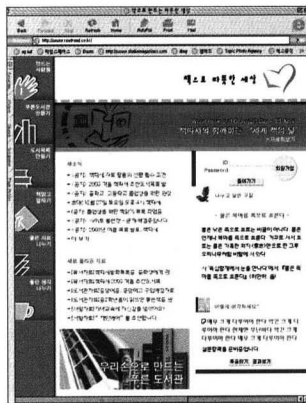
책파세 홈페이지는 www.readread.co.kr. 나른한 방학과 결별하고픈 청소년
 이라면 꼭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2003년 겨울 책파세 추천도서목록' 과 '중
 학교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 이 소개되어 있다.

독서교육과 독서의 바른 길 제시하는
 '독서대상'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독서대상' 은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다. 독
 서지도 우수교사와 책벌레 청소년들을 시
 상하는 독서대상은 상금으로 1억 원을 지
 원하는 국내 최대의 독서시상제도. 물론 이
 러한 전통과 상금액으로 독서대상의 가치
 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싸구려 덩
 평판 책들이 청산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고
 급양서를 갖춘 학교도서관의 변화는 독서
 대상이 거둔 가장 큰 결실인데, 이는 독서
 교사들의 창의적인 독서프로그램과 참여
 도 높은 독서교육을 격려한 데 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받을 수 있는 상이 또 독서
 대상이 아니다. 책을 읽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가, 독서가 얼마나 생
 활화되어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면밀히 심
 사, 시상한다.

독서대상을 주관하고 있는 독서새물
 결운동추진위원회 김낙준 위원장은 "성장
 기에 몸이 밴 독서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초점을 맞
 춘 것도 그런 이유"라며 독서대상의 숨은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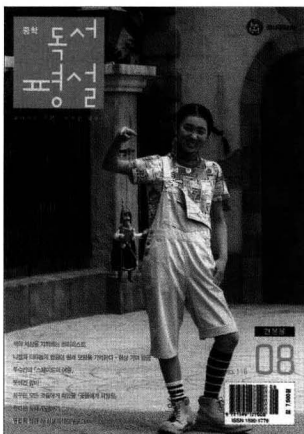
청소년 책읽기 격려하는 그룹



깊이 있는 책읽기가 입시경쟁력,
지학사의 월간 <독서평설>

월간 <독서평설>은 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청소년 교양잡지. <중학 독서평설>과 <고교 독서평설>로 나뉜 잡지는 다양한 책의 깊이 있는 읽기를 제공한다. 논술이라는 개념이 없던 1990년대 초부터 청소년들에게 논술이라는 개념을 선보이고 가르쳤던 잡지는 입시환경이 바뀌며 자연스레 그 가치를 높였다.

<중학 독서평설> 가운데 '문학마당'은 콘텐츠가 눈에 띈다. 우리 소설, 우리 시, 설화, 옛 시, 세계 명작 등 필수 읽기 자료로 독서의 힘을 키워 주고 있다. <고교 독서평설>의 콘텐츠는 장르화, 세분화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명저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명문을 통해 독서력을 키워 주는 '온고지신 고전 독파',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현대시와 고전시가'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십전심 문학 감상' 콘텐츠가 눈에 띈다. 지학사 독서평설 관계자는 "좋은 책을 깊게 읽을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입시만이 아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쟁력"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문학축제,
'대산 청소년문학상'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시행되는 '대산 청소년문학상'은 내일의 한국문학을 이끌어 나갈 문학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산재단의 문예장학사업이다.

청소년 문학워크숍인 '문예캠프'를 개최해 문학의 밤,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갖는데, 특히 2~3차례 문예캠프 현장백일장을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시상상을 하는 것이 대산 청소년문학상의 가장 큰 특징. 가능성을 평가받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출신 중고생들의 후속모임인 '절정문학회'가 연계되어 지속적인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절정문학회 1기 이미나(28) 씨는 "절정이란 이름은 이육사의 시 <절정>에서 옮겨온 것", "현재 300여 명의 대산 청소년문학상 출신 학생들이 다음 카페에서 교류, 오프라인 정기 합평회를 갖고 작품집을 만든다"며 모임을 소개했다. 청소년들의 문학축제인 대산 청소년문학상은 2004년으로 제12회를 맞는다. 대산재단 홈페이지 www.daesan.or.kr를 클릭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생문단 옥석 발굴하는 <푸른작가>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문학동네가 펴내는 청소년 문예지 <푸른작가>는 지난 2003년 6월 창간호를 선보인 신생 잡지. 신생이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까닭은 1950~70년대 높은 명성을 자랑한 청소년 문예지 <학원>의 뒤를 충실하게 잇고 있기 때문이다.

<푸른작가>는 학생 문단의 숨은 옥석을 발굴하기 위해 탄생되었지만, 잡지 속의 콘텐츠는 문학에 뜻을 둔 청소년들이 아니라도 필히 읽어볼 만하다. 문학 교과서와 문학수업, 교과서에 갇힌 문학 등을 흥미롭게 소개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는지, 청소년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산문, 소설, 서평, 기행문 등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푸른작가>에서 시행하는 '푸른작가 청소년 문학상'도 준비되어 있다.

책벌레 청소년들의 소질을 담아낼 문예지 <푸른작가>, '학원세대'의 뒤를 이어 '푸른작가세대'란 이름이 들려올 날도 멀지 않았다. [출판]

